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감성측정 접근방법 연구

The Approach of Human Sensibility Measurement based on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박 인 찬

충청대학 산업디자인과 강사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에 의한 감성인식
 - 2-1. 수직적사고와 감성측정 접근방법
 - 2-2. 사고의 전환
 - 2-3.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에 의한 감성인식
3. 음양오행사상과 인간의 감성
 - 3-1. 인간의 감성요인과 감성체율체계
 - 3-2.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감성체계의 이해
 - 3-2-1. 음양오행사상의 기본원리 고찰
 - 3-2-2. 심리와 인체조직체계의 이해
 - 3-2-3. 얼굴형과 얼굴색체계의 이해
 - 3-2-4. 감성요인 으로서의 형태와 색채로 응용
 - 3-2-5. 감성체계의 이해
4.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감성측정 접근 가능성
 - 4-1. 감성측정의 논리적 접근
 - 4-2. 감성측정사례
 - 4-3. 기대효과 및 활용가능성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Human beings receive experiences and education in viewing and manipulating objects since birth. These experiences in forms and colours influence significantly the formation of the person's humanity, sensibility and constitution until he becomes an adult.

Considering that all objects coexist through space and time with human beings from birth to an adulthood, we can imagine how these things shape a person.

Human beings' perception of form and colour might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erson's living environment, experiences, education, age and job. However, when we see there are certain kinds of form and colour of that most people favor, we can understand that human beings have a certain inherent feelings about forms and colours.

Let's suppose a man faces an object that doesn't correspond with his basic feelings about form and colour. He would avoid that object at least unconsciously. All of his acts dealing with form and colour probably satisfy a desire for beauty which can be required from certain proper forms and colours.

By revealing the feelings about forms and colours that human beings originally have, this study is going to explore what kinds of form and colour have what kind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influences on human beings.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a theory suggesting more profitable and effective forms and colours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to the consume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basic feelings about forms and colours which human beings posses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psychology and the body's condition. It also establishes the reality of the principle of how human psychology and the body change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inally, it will be appropriate for the suggested theory from this study to be used as fundamental material in deciding the forms and colours used in the design field in the future in that these forms and colours are more profitable and efficient.

논문요약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물을 보고 다루는데 있어서 경험하고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태와 색채로 구성된 사물에 대한 경험과 교육은 인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인성과 감성 및 체질을 형성시켜 주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인간이 유아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에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한 인간을 어떻게 형성시킬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사물로부터 주로 형태감, 색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느낌은 개인의 생활환경 및 경험, 교육, 연령, 직업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어떠한 사물의 형태와 색채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인간은 사물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근본적인 형태감, 색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즉, 자신의 형태감과 색감에서 벗어난 어떤 사물을 접했다고 가정해 보자. 적어도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서도 이 사물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형태와 색채를 다루는 모든 행위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와 색채를 실현시킴으로써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감과 색채감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형태와 색채가 인간에게 어떻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내용과 사용자에게 보다심리적, 신체적으로 유익하게 유효적절한 형태와 색채를 제공하기 위한 감성측정 접근방법의 모색을 과제로 삼았다.

연구결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형태감과 색채감은 인간 개개인의 심리와 인체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과 주위의 환경요건 즉, 구체적으로 형태와 색채가 변화됨에 따라 인간의 심리와 인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음양오행사상의 관련이론을 통해 인식하고 설문방식을 통하여 본 이론의 실제성을 확인해 보았다.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은 더욱 체계화되고 심화될 때 인간에게 보다 유익하고, 유효적절한 형태와 색채의 사물을 실현 시키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WORD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metal, wood, water, fire, and earth)
human psychology, human body,
forms (rectangle, reverse triangle, circle, square, triangle),
colours (blue, red, yellow, white, black)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현 디자인 분야에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인간의 감성에 대한 연구를 되돌아보고 그에 대한 부분적인 과제를 인식함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인간의 감성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여러관점과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성공학, 감성디자인 등의 감성과 관련된 수식어가 현저히 많아지고 있음은 그만큼 연구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 의한 감성연구방향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현 접근방법들의 부분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의미분별법의 형용사 선정과 배분에 있어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과제로 제시된다.

둘째, 인간의 감성은 개인마다 틀리고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시시각각 틀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방법의 개발이 과제로 제시된다.

셋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처리 방법으로는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감성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새로운 방법이 과제로 제시된다.

넷째, 인간의 감성은 외부환경의 자극에 따른 인간심리와 인체상태의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함으로 심리와 인체에 대한 상호연관관계와 감성변화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제시된다.

이상은 감성공학이나 감성디자인 관련연구자들이 과제로서 생각하고 현재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수직적 사고에 의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량적 정수적 연구방법으로서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인간의 감성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방법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고 수평적 사고에 의한 사고전환의 일환으로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음양오행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차후의 감성연구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앞의 글에서 동양적 사고에 의한 인간감성에 대한 이해를 음양오행사상을 통해서 하고 나아가 감성인식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 수직적 사고에 의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량적 정수적 연구방법에 의한 현 감성에 대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평적 사고에 의한 사고의 전환을 제안한다.

두번째, 인간의 감성요인과 감성체율체계를 이해하고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대표할 수 있는 음양오행사상에서 제시하는 감성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세번째, 인간의 심리와 인체 그리고 얼굴형과 얼굴색이 음양오행사상의 상생, 상극, 상화작용의 원리에 의하여 어떻게 운용되는가와 얼굴형과 얼굴색의 디자인 요소로서의 형태와 색채로의 응용관계를 이해한다.

네번째, 본연구의 감성체계의 이해가 인간의 감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서의 기대효과와 가능성을 모색한다.

연구방법은 현 감성관련 디자인 연구에 관한 실무와 문헌조사와 함께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음양오행사상의 문헌조사와 설문조사의 활용, 그리고 동양체질연구가 및 한의사들의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한다.

2.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에 의한 감성인식

2-1. 수직적 사고와 감성측정 접근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 가지는 의미는 인간의 의식주에 있어서 삶의 질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에 유용한 사물을 아름답게 제작 하고자 하는 노력과 영원에 둘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영원으로 산업사회로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인간을 연구하고 디자인을 개발해 온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수직적 사고에 의한 디자인 이론이나 방법들은 우리의 생활문화 및 디자인분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제 사회는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간 개인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디자인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보았을 때 1 + 1 = 2 라는 논리적이고 수학적 정량적, 정수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이해하고 기준을 잡고자 하는 수직적 사고와 그에 따른 방법들 즉, 체크리스트, 의미분별척도법, 순위차트, 인간감각계측, 생체계측, 생체제어 등은 인간의 심리, 인체상태, 형태감, 색채감등을 측정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정보분석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신뢰감을 주어왔지만, 인간의 감성(형태감, 색채감, 심리, 인체 등)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감성요인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할 현 시점에서 감성요인의 개별적인 파악(색이면 색, 형이면 형 등)에 제한되는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현실에 대처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수직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법」으로 사고를 전환해 봄으로서 현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2. 사고의 전환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새로운 사고법」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잠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논리학이나 수학만으로는 불충분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있어 논리학과 수학을 응용한다는 것은 더한층 생각이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음은 사실이다. 논리학이나 수학, 컴퓨터 등은 2차적 정보처리 시스템이며, 이들은 이미 선택되고 정리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조작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기위해 이와 같은 선택이 행해진 다음이라면 이미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법」은 미정리된 1차적 단계에서의 정보를 직접 취급하게 되는데 이 점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이 1차적 정보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고법」에서 흔히 활용하는 것이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이다.

이 새로운 사고법은 논리학이나 수학, 컴퓨터와 같은 물리학적 정보처리의 원칙과는 전혀다른 생물학적 정보처리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가령, 생물학적 정보처리에서는 틀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물리학적 정보처리로는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언제든지 정확해야만 한다. 이와같은 생물학적 정보처리의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고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에는 수평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머리를 사용하는 오직 한가지 방법으로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등에서 볼수 있는 ‘수직적 사고’를 취해왔다. ‘수직적 사고’는 뚜렷하고 확실한 방향만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직진한다. 이는 - 논리적 기술에 의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 두뇌의 자기확대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에 전혀 다른 사고법이 있다. 한 곳에 구멍이를 파들어 가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 또 다른 구멍이를 팔 수는 없게 된다. ‘수직적 사고’란 이처럼 한 구멍이를 계속 깊이 파들어가 가는 것이고, ‘수평적 사고’는 어느 장소든지 불문하지 않고 구멍이를 파본다는 사고방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평적 사고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패턴을 떠나서 다른 몇 개의 패턴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

수평적 사고는 수직적 사고에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즉, 양자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어서 서로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수평적 사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수직적 사고가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수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의깊게 해결하려는 데 비해, 수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받아들인 다음, 거기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다른 각도로부터 조명해 나가 전혀 다른 방법들을 탐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수직적 사고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 계곡에 모였다가 마침내는 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길을 따라 흐르는데, 그 의식의 흐름의 수로는 미래의 수로를 위해 더욱 더 커져 흐름을 안정시킨다. 말하자면 수직적 사고가 확실성이 높은 사고라고 한다면 수평적 사고는 확실히 흐름이 완만한 낮은 사고다.

수평적 사고는 물의 흐름을 변경시키기 위해 새로운 수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보다 나은 흐름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낮은 수로는 막아 버린다. 때로는 그 흐름이 무척 완만한 형태로 위로 치솟을 때도 있다.

이처럼 확실성이 낮은 사고도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내는 발견의 순간(eureka moment)이 있게 되고 확실성이 가장 낮았던 방법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바뀌게도 된다. 이와같은 순간은 물줄기나 ‘사이펀’ 현상에 의해 아래로부터 위로 자유롭게 역류하는 때와 비교될 수 있다.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수평적 사고가 언제나 추구하는 목표인 셈이다.

수평적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의 사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창조적 사고는 수평적 사고라는 넓은 범위의 사고 방법 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수평적 사고는 순수한 창조적 사고일 때도 있고, 때로는 단순히 사물을 보는 각도를 달리한 방향의 변경에 불과하여 완전한 창안(創案)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창조적 사고는 일정한 사람에게 국한되므로 특별한 표현력을 필요로 할 때도 있으나, 수평적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다.

수평적 사고는 논리정연한 수직적 사고와 간격이 벌어질수록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의도적이고도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 수평적 사고는 사고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령 수평적 사고가 방향선택이 곤란해졌을 때라도 그것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혼란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논리적인 사고력이 대기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되어 손질되고 또 최종 판단을 내린 후에 선택을 하게 된다.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와의 차이점은 수직적 사고에서는 논리가 두뇌를 조정하고 있는 반면에 수평적 사고에 있어서는 논리가 두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수평적 사고는 배우는 데로 즉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술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 태도이며 두뇌를 활용하는 습관이다.

수평적 사고의 원리로서 다음의 4가지 항목을 들을 수 있다.

- 첫째,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 둘째, 여러 면에서 사물을 보는 방법을 찾아낸다.
- 셋째, 수직적 사고의 일정한 틀에서 탈피한다.
- 넷째, 우연한 기회를 포착한다.¹⁾

선과악, 추하고 아름다움,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즉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을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더라도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포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자연주의적 사고에 의한 음양오행사상을 기초로한 인간감성에 대한 접근은 학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현 감성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동양적 이론의 활용으로서의 한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3.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에 의한 감성인식

동양사람들은 예로부터 많은 사색과 체험을 통해 동양 고유의 귀중한 철학과 사상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연주의 사상이다.

1) 에드워드. 디보노 저 수평적 사고방식 민성사 1991. p13 - 47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모든 사물과 인간 생활에 대한 이치를 잘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서양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비해 동양의 사상은 자연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공생하려는 의지, 정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 「스스로 자에 그럴 然」의 원리를 현재까지 잘 계승하고 있는 이룬 중에서 허준의 동의보감은 현재 한의학의 원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모든 원리가 이치에 맞아 누구나 그 효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처럼 훌륭한 동의보감의 의화이론은 음양오행사상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인간의 심리와 성격 그리고 인체에 관련된 내용은 동의보감의 원전의 황제내경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감성을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조망함으로써 동양적 시각으로 감성을 해석해 본다는 개념이다. 논리적 분석적 사고가 아닌 자연주의적 사고를 통찰 경우의 잇점은 인간내면의 심리와 인체체계 그리고 형태감, 색채감을 분리된 상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잇점은 프로이드의 동기연구에 있어서 인간행동을 규정 짓는 심리적 영향요인을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인간의 의식표면에서 인지되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인체조직의 변화상태나 형태감, 색채감을 통해서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로서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의 잇점에 대해서 서술 했지만 인간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디자인 분야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양방의 사고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3. 음양오행사상과 인간의 감성

3-1. 인간의 감성요인과 감성체울체계

본 단락에서는 인간의 감성체울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단락의 음양오행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감성체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심리와 인체, 사물(형태/색채)은 서로 유기적인 체계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어느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외부환경(조명, 온도, 습도, 주변사물, 주변상황등)과 내부환경(심리상태, 인체생리상태)이 시시각각 변화에 기인한다. 인간의 감성을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이해해야 하고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성체계를 인식하는 것이 순서로 생각된다.

다음의 다이어그램은 인간의 감성체울체계에 대한 도식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외부환경은 사물(형태, 색채)로 내부환경은 인간(심리, 인체)으로 감성요인의 대표적인 인자로서 인식하고 인간과 사물과의 상호영향관계를 감성체울체계로 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체울의 의미는 인간과 사물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체울로 명한 것이다.

다음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우리는 흔히 인식해왔던 사물에서 인간으로의 경로 외에 인간에서 사물로의 경로를 접하게 되는

데, 후자의 경로는 인간의 심리와 인체상태가 변화됨에 따라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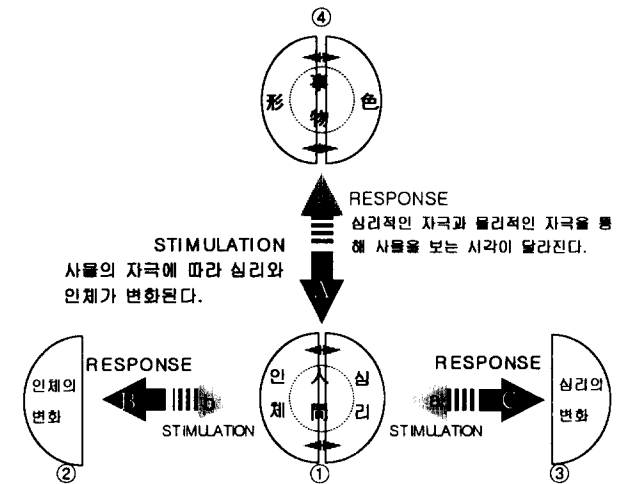
- ①. 인간을 크게 몸과 마음으로 나누듯이 인체와 심리로 나눈다.
- ②. 인체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③. 심리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④. 사물을 크게 형태와 색채로 나눈다.

- A. 사물의 자극을 인간이 받아 들인다.
- B. 사물의 자극을 통해 인체가 변화 한다.
- C. 사물의 자극을 통해 심리가 변화 한다.

사물의 자극에 따라 심리와 인체가 변화된다.

- a. 심리의 변화(희로애락)
- b. 인체의 변화(신진대사, 체온, 피로, 쾌적)
- c. 심리, 인체의 변화에 따라 사물을 보는 시각(느낌)이 달라진다.

심리와 인체의 변화에 따라 사물에 대한 시각(느낌), 기초가 변화 된다.



인간의 감성요인과 감성체울체계

3-2.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감성체계의 이해

3-2-1. 음양오행사상의 기본원리 고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고대 의학 이론인 황제내경²⁾의 원리는 음양오행사상을 근본원리로 하여 인간의 신체에 대한 그리고 인간성격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우주의 기운인 음양오행의 기운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그러면 본 연구의 핵심인 황제내경의 원리를 그 근원이 되는 음양오행사상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 편의상 음양중 사상과 오행오운(五行五運)의 원리(상생, 상극, 상화)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음양중 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흔히 우리들은 우주에는 음과 양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지만 음양³⁾ 이외에도 중(中)이 있다. 자연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음양중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를 음양중으로 나누어 보면 음은 방울 양은 낮을 일몰과 일출은 중으로 분류가 된다.

우주의 '경우도 음은 땅, 양은 하늘, 사람은 중으로, 사람인 경우 음은 육체로, 양은 정신으로, 힘(氣-기분,느낌,감정)은 중으로, 가정을 보면 음은 아내, 양은 남편, 중은 자식, 원자구조를 보면 음전자, 양전자, 중성자로 나뉘고, 달이 있으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음양으로 분류되는 만물은 음양중으로 분류된다.

둘째, 오행오운(五行五運)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음(陰)과 양(陽)과 중(中)에 속하는 힘의 중재를 받아서 다섯가지 종류의 힘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오행오운(五行五運)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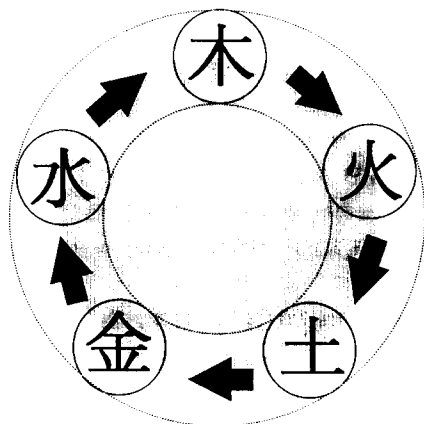
즉,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힘을 木氣라고 하며, 음양이 서로 충돌하여 뜨겁게 불타서 확 퍼지는 힘을 火氣라고 하며,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뜨겁게 통합하는 힘을 土氣라고 하며, 음양이 서로 잡아당기어 싸늘하게 긴장시키는 힘을 金氣라고 하며, 음양이 서로 반항하여 밀어내는 힘을 水氣라고 한다.

이와같은 다섯가지 힘 또는 기운은 서로 도와주어서 상생하고, 서로 견제하여 상극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화 함으로써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데, 그것은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북극성을 도는 것처럼, 목적도 뜻도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과 같다. 한편 이 지구 상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과 인간과 같은 생명체에만 있는 생명력, 즉 죽었다 살았다 하는 힘을 말한다.

위와같이 다섯가지 힘 또는 기운은 서로 도와주어서 상생하고, 서로 견제하여 상극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화 함으로써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오행오운의 상생, 상극, 상화 작용이라 한다.

- 상생작용(相生作用)

상생(相生)이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장하가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재가 굵으면 흙이 되고 흙이 굵어서 돌이 되고 돌이 굵으려면 물이 나오고 물이 있으면 나무가 나오는 즉, 서로 공생(共生)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즉 우주천체(宇宙天體)의 자율운동(自律運動)과 같다.⁴⁾



오행오운의 상생작용

- 木(나무): 자신을 불태워 불(火)을 일으키고(木生火)
 - 火(불) : 모든 것을 태워 흙(土)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태양의 빛을 받아 흙을 돋우며(火生土)
 - 土(흙) : 웅고응집된 상태로 있으면서 땅속의 쇠(金)가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하고(土生金)
 - 金(쇠) :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스스로 물(水)을 만들어 흘러 보내고 있으며(金生水)
 - 水(물) : 땅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木)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을 돕는 일에 충실하고 있다.(水生木)
- 즉, 나아가
- 木이 희생하면서 火로 변하여 土를 생하고,
 - 火가 희생하면서 土로 변하여 金을 생하고,
 - 土가 희생하면서 金으로 변하여 水를 생하고,
 - 金이 희생하면서 水로 변하여 木을 생하고,
 - 水가 희생하면서 木으로 변하여 火를 생한다.

이상은 목, 화, 토, 금, 수, 상화가 상생(相生)작용 즉,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生水(金生水), 수생목(水生木)과 같이 상생하는 것으로 상대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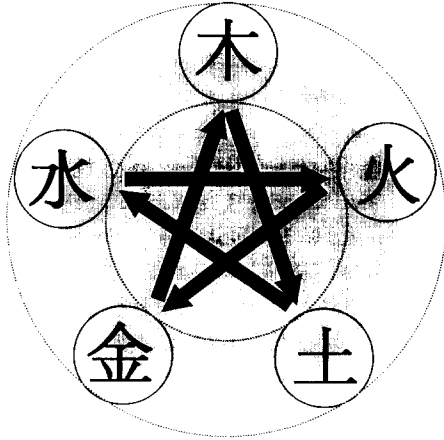
- 상극작용(相剋作用)

상극(相剋)이란 우주만물이 무한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서로 견제 함으로써 동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작용으로서 서로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쌍방이 필요선(必要善)의 입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주에 상극의 원리가 없다면 인간의 수명(壽命)도 무한(無限)이 되겠지만 극(剋)의 원리가 있기에 유한(有限)의 생명(生命)을 살고 있는 것이다. 즉 앞에서 설명한 인체조직체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성장을 하면 조직에 균형을 이루어 무한의 생명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균형이 깨지게 되면 본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 木(나무) : 불(火)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나무는 오히려 금(金)의 극(剋)을 받으면서까지 불(火)에게 도움을 주며,(金剋木)
- 火(불) : 물(水)의 극(剋)을 받으면서도 흙(土)에게 도움을 주고,(水剋火)
- 토(흙) : 나무(木)의 극(剋)을 받으면서도 쇠(金)에게 도움을 주고,(木剋土)
- 금(쇠) : 불(火)의 극(剋)을 받으면서도 물(水)에게 도움을 주고,(火剋金)
- 수(물) : 흙(土)의 극(剋)을 받으면서도 나무(木)를 보호하며 생육한다.(土剋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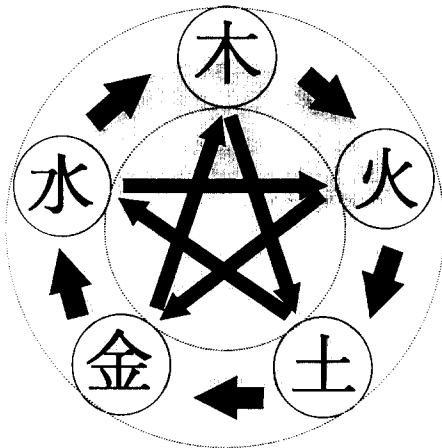
2) 김 태영. 선도체험기. 유림. 1996. 8권. p133.
 황제내경은 배달국(배달국은 단군조선 이전 1585년 동인의 우리 민족의 이름이다)의 14대 임금인 치우천황 때의 대신선이며 학자인 자부선인이 자신의 제자 황제현원에게 전수한 것으로서 인류최고(最古)의 의서(醫書)이다.
 3) 정 다운. 人生十二進法. 1989. p15
 황하유역의 고대중국인들은 지구의 음양의 근원이 되는 태양과 달을 관찰했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을 대표적인 별로 정하여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음양오행설을 창안했다. 그들의 연구대상이었던 일곱 별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1주일의 이름의 근원이 되었다.
 4) 김 봉준. 신비한 동양철학2 (쉽게 문 역학). 삼한출판. p163,164.



오행오운의 상극작용

- 상화작용(相和作用)

상생, 상극작용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상화작용이라 하는데 우주가 음양중의 원리로 되어 있어서 상생은 양, 상극은 음, 상화는 중이 되어 상화가 잘 이루어 질 때 오행오운(五行五運)이 조화가 되어 음양오행이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⁵⁾



오행오운의 상화작용

3-2-2. 심리와 인체조직체계의 이해

인간심리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유형론과 특성론 2가지 입장을 들 수 있다. 유형론은 인간을 전인격으로서 질적 차이를 몇 개의 카테고리, 즉 성격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려는 방법이다.

한편 특성론은 만인에게는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몇가지 성격특성이 있고 그 구조에 의해 개인의 특성이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먼저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차원의 성격의 제 특성을 추출하고, 그 다음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 특성의 강약을 표시한다.

결국 인간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적인 차이라고 보는 것이다.⁶⁾ (다음 단락에서의 음양오행사상에서의 성격분류는 특성론의 성격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 심리체계의 이해

음양오행사상은 인간심리를 5가지 인간의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은 5가지의 성격(심리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 특정 성격(심리의 유형)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한다.(앞의 특성론 참조)

음양오행사상은 이러한 5가지 유형의 성격(심리의 유형)은 음양오행의 오행 즉,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기운을 받아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5가지 기운의 형성은 장하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5가지 행성들의 기운은 5계절을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 형성시키면서 인간에게 각각 5가지 유형의 성격을 형성 시키는데, 여기에 더붙어서 환경기에 해당되는 -행성들의 기운이 교체되는- 때의 기운을 받아서 형성되는 성격이 하나 첨부된다.⁷⁾ 다음의 내용은 오행성의 기운을 받아 형성된 인간의 성격(심리의 유형)을 크게 5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목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의 -목형의 사람이라고 칭함- 본성)

- 부드럽고 따뜻하다.
- 온화하고 인자하며 다정하다.
- 희망적이고 문학적이다.
- 교육적이며, 행정적이다.
- 과감하며 결단력이 있다.
- 계획하며 설계하고 꾀가 많다.
- 교육자, 행정가, 문인, 미술가 등이 많다.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

(화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의 본성)

- 밝고 화려하고 정열적이다.
- 환상적이며 예술적이다.
- 예절 바르고, 탐구심, 모험심이 강하고 용감하며 희생하고 산화한다.
- 육감이 예민하다.
- 예술가, 체육인, 언론인이 많다.

(토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의 본성)

- 명령적이고 위엄이 있다.
- 일편단심이다.
- 확실하고 철저하고 정확하며 틀림이 없다.
- 신용이 있고 직접 일하며 배운 대로 실천한다.
- 농업, 요식업, 생산직 직업이 많다.

(금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의 본성)

- 결실하고 정리한다.
- 모범을 보이며 지도력이 있다.
- 다스리기를 좋아한다.
- 규칙적이다.
-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하며 의리와 지조가 있다.
- 군인, 경찰, 법관, 정치가, 지도자가 많다.

(수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의 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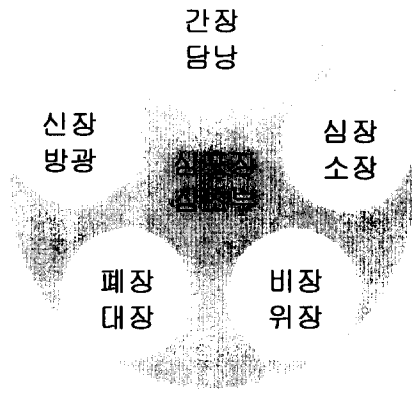
- 참고 견디며, 저장한다.
- 지혜가 있고 발전적이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5) 김 춘식, 오행생식요법, 유림, 1996, p215 - 226.
 김 봉준, 신비한 동양철학 2 (쉽게 문 역학), 삼한출판, p163 - 169.
 6) 오미켄타로, 권 민 譯, 조형심리, 東國出版社, 1995, p262.
 7) 김 춘식, 오행생식요법, 유림, 1996.

- 연구하고 개발한다.
 - 한발 물러서서 기다리고 내성적이며 양보한다.
 - 과학자, 수학자, 음악가, 연구자들이 많다.
- (해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의 본성)
- 종재능력이 있고 차분하고 침착하다.
 - 생명력과 저항력이 강하다.
 - 적응력과 순발력이 뛰어나다.
 - 임기응변이 좋으며, 다재다능하고 능수능란하다.
 - 종개업, 상당인, 언론인들이 많다.⁸⁾

● 인체체계의 이해

음양오행사상을 토대로 한 고대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을 보면 인체를 6장6부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서로 영향을 주는 인체 내 외부의 다른 기관들과 상호유기적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6장6부는 신체 다른 기관에 골고루 영향을 줌으로서 인체의 모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6장6부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는데 장부 중에 5가지는 유형(有形)의 장부인데 반해 심포장, 삼초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인간의 생명력과 관계된 장부이다. 다음의 그림은 인체조직의 모체를 설명하고 있다.



인체조직의 모체 (6장6부)

앞의 설명에서 6장6부는 인체의 다른 조직들과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고 하였는데, 아래의 내용은 인체의 모체인 6장6부가 지배하고 있는 인체조직을 설명한 것이다.

(6장6부가 지배하는 인체부위)

- 간장, 담낭이 지배하는 부위: 간장, 담낭, 간경, 담경, 대맥, 눈, 목, 고관절, 발, 편도선, 근육
- 심장, 소장이 지배하는 부위: 심장, 소장, 심경, 소장경, 독맥, 주관절, 얼굴, 상완, 혀, 피, 혈관
- 비장, 위장이 지배하는 부위: 비장, 취장, 위장, 비경, 위경, 충맥, 비계, 배, 무릎, 대퇴부, 입, 입술
- 폐장,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 폐장, 대장, 폐경, 대장경, 임맥, 피부, 체모, 손목, 하완, 가슴, 향문
- 신장, 방광이 지배하는 부위: 신장, 방광, 신경, 방광경, 양교맥, 음교맥, 뼈, 골수, 힘줄, 귀, 허리, 이빨, 머리털, 흥부, 겨드랑이 털

- 심포장, 삼초부가 지배하는 부위: 심포장, 삼초부, 심포경, 삼포경, 양유맥, 음유맥, 견관절, 손, 임피맥, 표정⁹⁾

이상의 음양오행사상을 토대로한 황제내경의 의학 이론은 이후에 후손들에 의해 동의보감에 전래됨에 따라 현재 동의보감을 원전으로 하고 있는 한의학의 대 원전으로서 실제적으로 실험과 체험을 통해 검증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인간의 심리와 인체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인간의 심리와 인체의 상관관계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온 이론을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의 이론들은 인간이 자극을 통하여 반응하는 단계를 지각과 인지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심리의 형성과 반응하는 과정에서의 인체 변화 상태 속에서 표출된 현상들이다.

- 붉은빛은 심장을 자극하여 사람을 흥분시킨다.
- 푸른빛은 일시적인 마비증상을 갖게한다.
- 주황색은 식욕을 돋군다.
- 레몬을 생각하면 침이 나온다.
-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온다.

이처럼 상식으로 알고 있고 이론들은 실험과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밖에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인간심리와 인체에 대한 상호작용은 검증이 되 오고 있다. 색채요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은 색깔있는 광선이 전신(全身)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다른 색깔들이 다양한 신경병 치료에 적용되어 왔다. 위의 '붉은 빛이 심장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반면, 푸른빛은 일시적인 마비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¹⁰⁾는 이론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색채는 인간 심리와 인체의 양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2-3. 얼굴형과 얼굴색체계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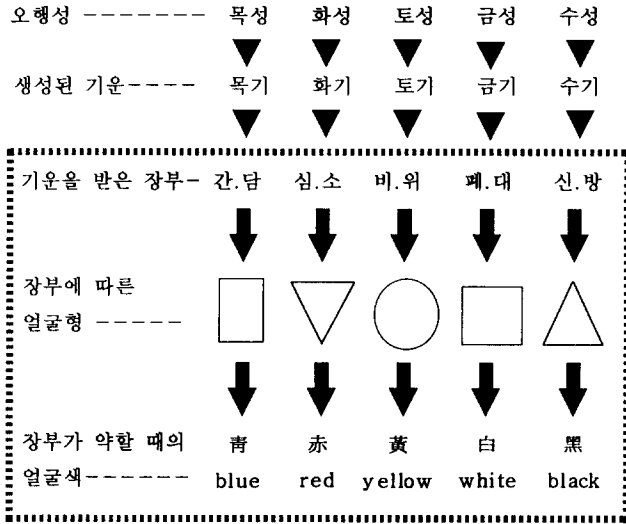
전술하였듯이 음(陰)과 양(陽)과 중(中)에 속하는 힘의 중재를 받아서 다섯가지 종류의 힘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오행오운(五行五運)이라 하였고,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힘을 목기, 음양이 서로 충돌하여 뜨겁게 불타서 확 퍼지는 힘을 화기,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뜨겁게 통합하는 힘을 토기, 음양이 서로 잡아당기어 싸늘하게 긴장시키는 힘을 금기, 음양이 서로 반항하여 밀어내는 힘을 수기라고 하였다.

그럼, 이러한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는 어디서 생성된 것인가. 이러한 기운은 요일의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근원을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에 두었던 것처럼 목의 기운은 목성에서, 화의 기운은 화성에서, 토의 기운은 토성에서, 금의 기운은 금성에서, 수의 기운은 수성에서 생성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한편, 이러한 오행성의 기운은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앞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인간의 성격을 크게 5가지로 특징지어 주었고, 신체 또한 크게 5부분 별로 -간장/담낭, 심장/소장, 비장/위장, 폐장/대장, 신장/방광-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 부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얼굴형과 얼굴색이 5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다음의 도표를 통하여 쉽게 이해되어 질 수 있다.

8) 김 춘식, 천공생식원자료, 1996.
 9) 김 춘식, 오행생식요법, 유림, 1996.
 10) W. Kandinsky, Über das Geistige in Kunt (권 영필 譯, 칸딘스키 예술론,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미술선집, 1995. p55.)

그림 '오행성 기운과 인간에 대한 영향'은 장부에 따른 5가지 얼굴형과 5가지 얼굴색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내용 중 점선 부분을 부분은 인간의 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모든 우주의 만물들은 음양중의 원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인간은 음양중 즉 정(精), 기(氣), 신(神)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음은 정(精)으로서 육체로서 자체이고, 양은 신(神)으로서 생각, 사상, 이상, 이성, 정신을 말하고 좋은 기(氣)인데 이것은 마음, 기분, 느낌, 감정을 말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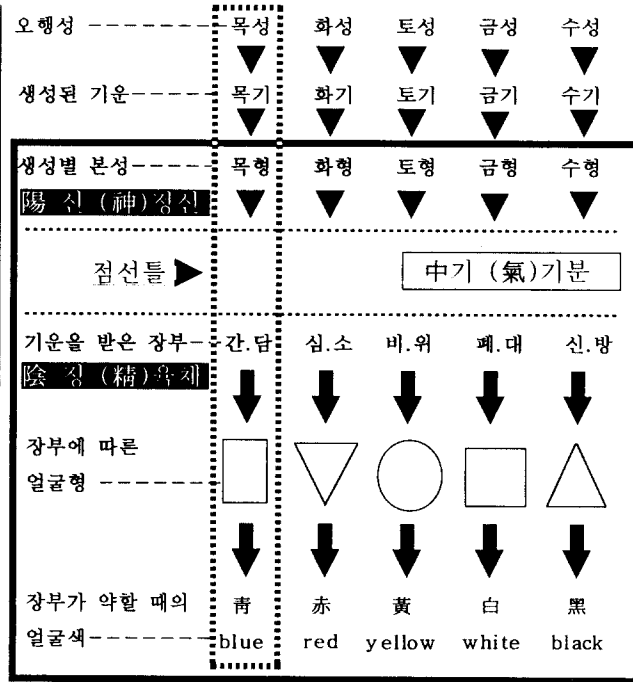


(오행성 기운과 인간에 대한 영향)

이처럼 인간은 정(精), 기(氣), 신(神)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의 비중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정신, 육체, 기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음양오행의 기운이 인간 즉, 정, 기, 신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기(氣)와 신(神)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생각, 사상, 이상, 정신, 마음, 기분, 느낌, 감정인데 오행성의 기운은 인간의 본성을 크게 5가지로 특징지어 놓았다.

다음의 그림은 음양오행의 영향에 따른 인간의 본성과 인체의 특징을 종합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기(氣)는 정, 기, 신의 상호조화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 기분, 느낌,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정과 신의 바른 조화 속에서 좋은 마음, 기분, 느낌, 감정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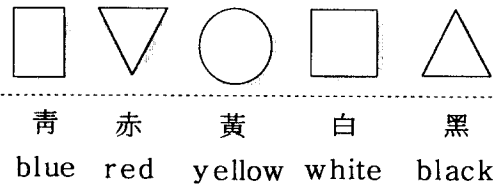
그리고 수직 점선 틀을 보게 되면 목기(목성의 기운)에 따른 인간의 본성과 장부(간담)와 얼굴형(장방형)과 얼굴색(청색 -내재된 색채로서 건강한 사람인 경우 외부로 표출되지 않음)은 일정한 인간에게 형성되는 것들로서 이것들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므로써 외부 환경, 자극의 변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변화하게 됨을 나타낸다. 즉, 외부의 자극을 받아 신체의 장부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아울러 얼굴형이 변화되고, 얼굴색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음양오행의 영향에 따른 인간의 본성과 인체의 특징)

3-2-4. 감성요인으로의 형태와 색채로 응용

이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음양오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얼굴형과 얼굴색을 감성요인 으로서의 형태와 색채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응용하고자 하는데, 응용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얼굴형과 얼굴색을 감성요인 으로서의 형태와 색채로 응용)

즉, 앞에서 인간의 본성과 신체장부상태 그리고 얼굴형과 얼굴색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므로써 외부 환경, 자극의 변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변화하게 됨을 설명하였듯이 외부의 자극을 "사물" 즉 형태와 색채로 대표하게 될때 이러한 사물의 변화는 인간 개개인의 심리와 인체상태에 영향을 주게됨을 알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얼굴형과 얼굴색은 단지 크게 5가지로 각각 분류되어 지지만 이러한 형태와 색채의 복합(형태들간의 결합, 색채들간의 결합)은 모든 사물의 형태와 색채의 기본형과 기본색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기에 본 연구자는 위의 인간의 얼굴형과 얼굴색을 사물의 기본형태와 색채로 응용해 보고자 한다.

11) 김 춘식, 오행생식요법, 유림, 1996.

3-2-5. 감성체계의 이해

본 단락에서는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형태, 색채와 인간 심리(성격), 인체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음양오행사상의 상생, 상극, 상화작용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그림1과 2는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별로 인간심리(성격), 인체와 형태,색채를 분류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상생, 상극, 상화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 목, 화, 토, 금, 수에 해당하는 형태와 색채를 목, 화, 토, 금, 수에 해당하는 인간심리(성격), 인체와 통합시키면 그림3 과 같이 목의 기운에 목형의 심리(성격), 간담, 장방형, 청색이 함께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함께 위치함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시사해 준다. 즉, 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서로 일체가 됨으로서 심리(성격), 인체 조직, 형태, 색채 모두가 외부의 영향에 함께 반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목에 해당하는 간담의 기운이 커지면 목에 해당하는 심리(성격)이 두드러지고, 장방형과 청색의 기운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이 소유하게 되면 소유한 것을 제외한 다른 형태와 색채를 선호하게 됨)

그리고 외부영향 즉, 목을 제외한 화, 토, 금, 수의 영향을 받을 경우 목의 기운을 받은 것들은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하여 상생, 상극, 상화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상생작용 중 목생화를 예로 들자면, 나무가 자신을 불태워 불을 돕는 것처럼 목형심리(성격)는 화형 심리(성격)를 가진 사람을 돕고, 간담의 기운이 심소장을 돕는 상생작용의 원리에서 보았을 때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장방형(청색)은 역 삼각형(적색)을 돕는다는 원리가 성립될 수 있다. 형태와 색채의 도움 관계는 본 연구자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상극작용의 원리에서 목과 토의 관계는 적당한 나무가 적당한 땅에 심어질 때 즉, 균형을 이룰 때 조화가 되는것으로 서로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나무가 흙을 극하는 즉, 견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목이 토를 극(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목형 심리(성격)는 토형 심리(성격)를 가진 사람과 극(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간담은 비위를 극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장방형(청색)이 원(황색)을 극(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상화작용은 목, 화, 토, 금, 수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즉, 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화작용의 원리는 상생작용과 상극작용이 원만하게 균형을 이루어 조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앞의 그림3을 보게 되면 목형, 간담, 장방형, 청색은 한 쌍을 이루게 되는데 이 쌍은 다른 쌍들과 상생, 상극, 상화작용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담이 크게 태어난 사람은 비위장이 작게 태어나는데, 그 원리는 상극작용에서 서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극작용을 함과 동시에 화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간담이 크게 태어난 사람은 비위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비위장을 크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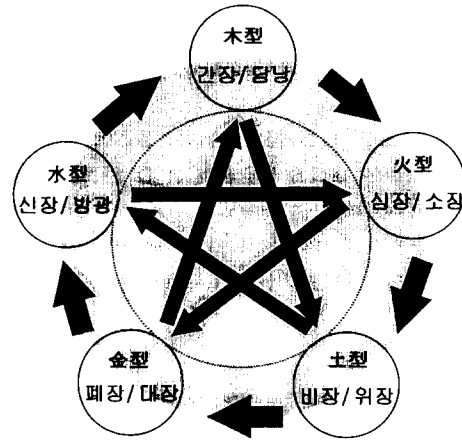


그림1. 인간 심리와 인체의 상화작용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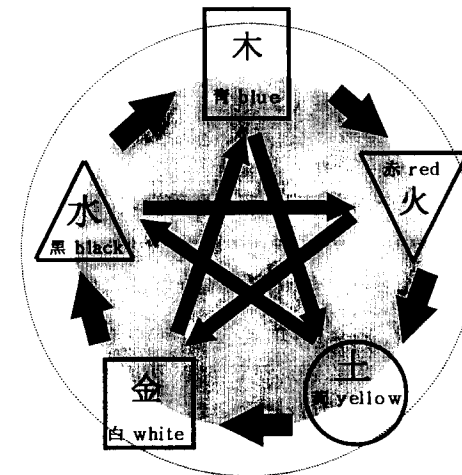


그림2. 형태와 색채의 상화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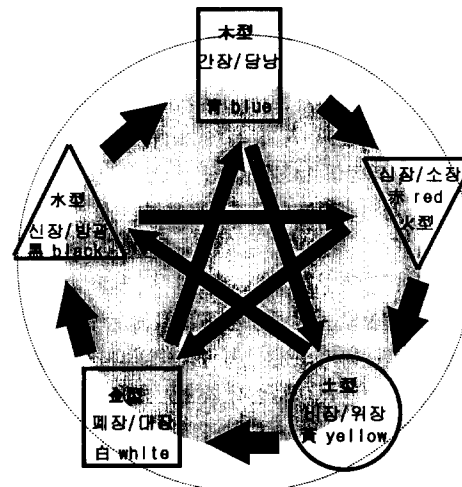


그림3. 형태, 색채와 인간심리,인체간의 상화작용의 원리

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은 비 위장과 관련된 토형심리(성격)를 선호 하게끔 하고, 원의 형태와 황색을 좋아하게끔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상상, 상극작용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상화(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자연의 원리인 것이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의학분야의 설명들은 대부분이 한의학이나 양의학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들로서 실제성이 입증된 것들임을 밝혀둔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상극작용과 같은 방식으로 상화작용을 설명하게 되면 형태와 색채 측면에서 장방형, 역삼각형, 원, 정방형, 삼각형, 청, 적, 황, 백, 흑 모두를 선호하고, 목, 화, 토, 금, 수의 심리(성격)들을 골고루 지니고, 간담,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을 모두 골고루 건강하게 하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즉 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보게 될 때 인간이 특정 형태나 색채를 좋아하고 특정 성격과 인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상화를 이루기 위한 자연스런 현상인 것이다. 즉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특별히 무엇인가를 선호하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서두에서 자연의 법칙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해 놓았다는 언급이 결국 일종의 미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법칙임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감성측정 접근 가능성

4-1. 감성측정의 논리적 접근

앞의 상상, 상극, 상화작용의 원리를 통한 형태, 색채와 인간 심리, 인체간의 상관성 분석에서 자연의 대 원칙인 음양오행사상의 상상, 상극, 상화작용의 원리를 토대로 하여 형태, 색채와 인간심리, 인체가 밀접한 상호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전개한 형태, 색채와 인간심리, 인체에 대한 이치와 감성측정 접근을 위한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도식화하여 그림4과 그림5로 제시하는데, 본 내용을 통하여,

첫째,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형태, 색채와 인간심리, 인체간의 상호영향 체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둘째, 음양오행사상의 상화작용의 원리에 기초한 감성측정 접근을 위한 기본원리와 수행원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한편, 그림4의 내용을 통해서 새로이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사고 방식 즉, 사물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와 인체가 변화된다는 생각을 역으로 되짚어 인간의 심리와 인체가 변화됨에 따라 사물을 보는 시각(느낌), 기호가 틀려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실 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사람이 성장하면서 선호하는 형태와 색채가 달라진다는 것과, 일시적으로 평소에 좋아하던 형태, 색채가 아닌 다른 형태와 색채를 선호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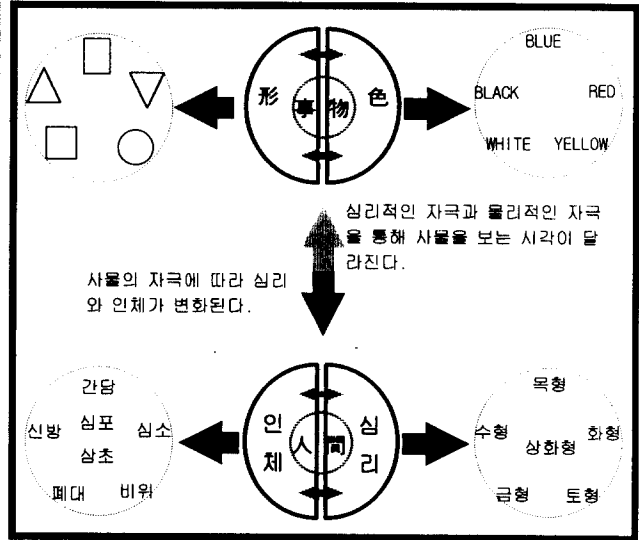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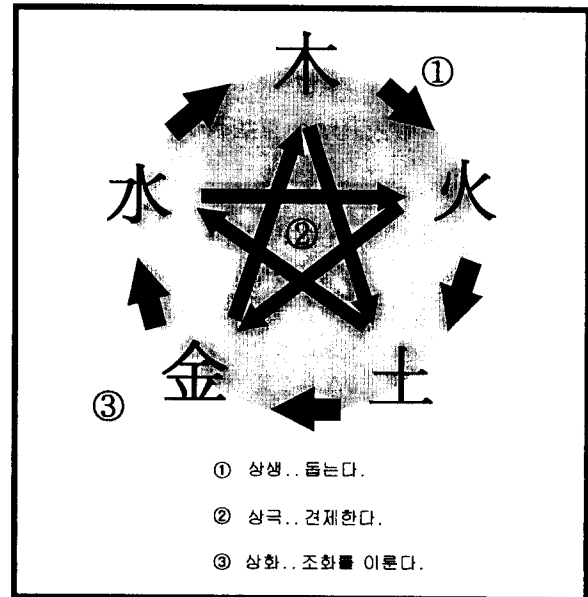


그림4. 형태, 색채와 인간심리, 인체의 상호영향체계

오 행 성	—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생성된 기운	-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	↓	↓	↓	↓
形	▶	□	▽	○	□	△
色	▶	청 BLUE	적 RED	황 YELLOW	백 WHITE	흑 BLACK
심리	▶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인체	▶	간장 담낭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방광

기본 원리



수행 원리

그림5.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감성측정 접근을 위한 기본원리와 수행원리

4-2. 감성측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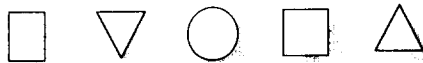
본 단락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그림4,5의 내용을 토대로한 감성측정 접근 가능성 모색의 한 방향으로 설문응답자를 통한 감성측정 사례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본 사례연구는 앞의 그림5의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상화작용에 의거하여 그림4의 "형태,색채와 인간심리,인체의 상호영향체계"가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대한 예를 설문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감성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이 아닌 본 연구의 이론이 어느정도 현실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제한적인 조사이다.

●설문 조사 방법

본 설문 조사는 ¹²⁾확인적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문 조사는 1997년 9, 10월 2달 동안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응답자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 비교적 형태와 색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고등학생을 최저 연령층으로 하여 대학생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여 200명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몸에 큰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정 형태와 색채에 치우칠 수 있기에 비교적 정신과 몸의 컨디션이 양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였고, 설문 지역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내용

설문 내용은 크게 나누어 형태에 대한 기호와 색채에 대한 기호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형태와 색채를 각각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얼굴형을 구체적으로 아래의 5가지로 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기본 성격과 체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형태와 색채에 대한 기호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되어 온 체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직업과 건강상태나 기호식품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설문 대상자의 체질 분류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설문지는 부록에서 제시함)



설문대상자의 얼굴형

●설문 내용 분석

다음의 도표1은 설문조사방법에서 제시한 설문대상자 기준에 의거해 200명을 선별하여 설문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 체질, 연령, 지역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그리고 도표2는 설문대상자의 얼굴형별로 선호형태와 색채를 선택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서 설문 결과를 보게 될때 60% 이상이 특정 형태와 색채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같은 선호비율은 음양오행사상의 상극작용의 원리에 어느정도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합이치는 '그림6. 형태,색채와 인간심리,인체간의 상극작용의 원리에 대한 적용의 예'를 통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12) 유 영호. 설문조사법. 자유아카데미. 1994.

문제의 인과관계와 구조를 사전에 예상해서 예상된 인과 관계와 구조(이를 '가설'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활동과 의식의 특정한 측면을 선택적으로 조사해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예상되는 인과 관계와 구조가 옳은가를 확인하는 조사

도표 1. 인구학적 특성 분석

구분	세부내용	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성별	남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65%]								
	여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35%]								
체질 (사람은 체질별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총합이 100% 이상으로 나올 수 있음)	목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75%]								
	화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60%]								
	토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40%]								
	금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20%]								
	수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5%]								
연령	10대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15%]								
	20대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55%]								
	30대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25%]								
	40대 이상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5%]								
지역	서울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70%]								
	지방	[Bar chart showing approximately 30%]								

도표 2. 체질에 따른 형태와 색채 선호에 대한 분석

선문대 상지	선호형태		선호색채						
목	□	○	75	□	58	황	62	백	62
화	▽	□	63	△	62	백	65	흑	68
토	○	△	54	□	52	흑	58	청	54
금	□	□	54	▽	52	청	78	적	54
수	△	▽	56	○	62	적	58	황	52

13) 설문대상자의 얼굴형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선 이마의 끝 부분 즉, 머리털이 나기 시작한 부분의 모양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이마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부분의 가로 간격을 알아야 한다.
2. 양 볼의 비깡쪽에 있는 턱뼈가 시작되는 끝부분들 간의 간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3. 최종적으로 1,2번의 이마의 간격과 턱뼈 양쪽간의 간격의 비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상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의 얼굴형을 파악하면 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길쭉한 얼굴형을 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이 장방형의 얼굴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참고사항으로 대개 턱뼈가 이마보다 넓을 경우는 삼각형, 반대의 경우는 역삼각형, 이마를 포함한 전체적인 형이 동글면 원형, 이마와 턱뼈의 길이가 같고 가로로 길쭉하면 장방형, 턱뼈가 유난히 두드러져 이마의 폭과 같고 얼굴 길이와도 비례가 비슷한 경우는 정방형으로 분류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고 한가지 얼굴형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얼굴형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계란형의 얼굴은 위의 5가지 얼굴형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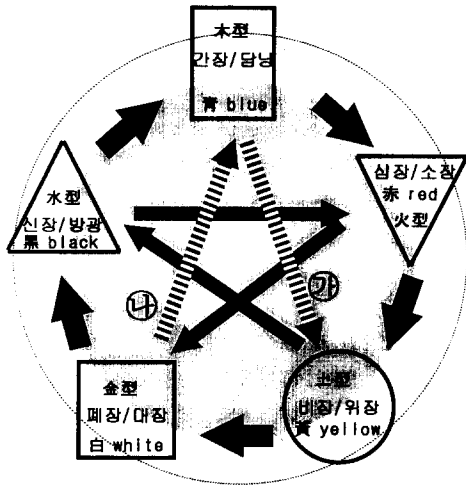


그림6. 형태, 색채와 인간심리, 인체간의 상극작용의 원리에 대한 적용의 예

앞의 그림6을 보게 되면 점선①는 목극토를, 점선②는 금극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목형인 사람의 경우는 얼굴이 장방형으로서 토의 기운을 견제하기 위해서 점선② 방향으로 목극토하여 서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원형과 활색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목의 기운이 너무 커지게 되면 토의 기운을 누르게 되니까 목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극목 하여 정사각형과 백색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도록 상극의 원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설문내용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표2 '체질에 따른 형태와 색채 선호에 대한 분석'의 내용을 보게 될 때 목형(장방형의 얼굴형)의 사람이 1 순위로서 원형을 75%, 황색을 58% 선호하고 2순위로서 정사각형을 62%, 백색을 62% 선호한다는 것은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의 확률은 선택대상이 5가지 임으로 20% 내외가 되겠지만 개개인의 체질(심리, 인체상태)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와 색채를 선호하게 되므로 60%이상의 선호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4-3. 기대효과 및 활용가능성

본 단락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을 함축하여 형태와 색채를 다루는 디자인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표3. "형태와 색채에 반응하는 심리적 물리적(신체적) 효과"와 같이 설명하고 음양오행사상의 상생, 상극, 상화작용에 따른 감성요인들의 영향체계를 앞의 그림 5의 기본원리와 수행원리를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도표3을 설명하자면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형태와 색채 ≡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심리와 신체에 각각 영향 즉 효과를 주게 되는데, 예를들면 장방형과 청색의 자극을받으면 목형의 본성(심리)을 많이 지니게 되고 목에 해당하는 간장/담낭과 그것들이 지배하는 신체부위(도표참조)들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은 음양오행사상의 상생, 상극, 상화작용에 따른 감성요인들의 영향체계를 앞의 그림 5의 기본원리와 수행원리를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림7은 상생작용에 의한 감성요인들

도표3. 형태와 색채에 반응하는 심리적 물리적(신체적) 효과

사물의 자극		인간의 반응	
형태자극	색채자극	심리의 소유	신체적 호전
	靑 blue	목형 본성의 소유 - 부드럽고 따뜻하다. - 온화하고 인자하며 다정하다. - 희망적이고 문학적이다. - 교육적이며, 행정적이다. - 감하며 결단력이 있다. - 계획하며 설계하고 피가 많다. - 교육자, 행정가, 문인, 미술가 등이 많다.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	간장/담낭 - 간장, 담낭이 지배하는 부위: 위: 간장, 담낭, 대맥, 방광, 고관절, 팔뚝, 편도선, 근육
	赤 red	화형 본성의 소유 - 밝고 화려하고 정열적이다. - 환상적이며 예술적이다. - 예술 바르고, 탐구심, 모험심이 강하고 용감하며 희생하고 산만하다. - 욕망이 예민하다. - 예술가, 체육인, 연예인이 많다.	심장/소창 - 심장, 소창이 지배하는 부위: 심장, 소창, 인경, 소장경, 목맥, 주관절, 얼굴, 상완, 허, 피, 혈관
	黃 yellow	토형 본성의 소유 - 영롱적이고 위엄이 있다. - 일면단심이다. - 확실하고 철저하고 정확하며 틀림이 없다. - 신용이 있고 직접 일하며 배운 대로 실천한다. - 농업, 요식업, 생산직 직업이 많다.	비장/위장 - 비장, 위장이 지배하는 부위: 위: 비장, 취장, 위장, 비경, 위경, 총맥, 비계, 배, 무릎, 대퇴부, 입, 입술
	白 white	금형 본성의 소유 - 결실하고 정리한다. - 모범을 보이며 지도력이 있다. - 디스리기를 좋아한다. - 규칙적이다. - 자존심과 승부욕이 강하며 의리와 지조가 있다. - 군인, 경찰, 법관, 정치가, 지도자가 많다.	폐장/대장 - 폐장,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 위: 폐장, 대장, 폐경, 대장경, 임맥, 피부, 체모, 손목, 허완, 가슴, 향문
	黑 black	수형 본성의 소유 - 참고 견디며, 저장한다. - 지혜가 있고 발전적이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 연구하고 개발한다. - 한발 물러서서 기다리고 내성적이며 양보한다. - 과학자, 수학자, 음악가, 연구자들이 많다.	신장/방광 - 신장, 방광이 지배하는 부위: 위: 신장, 방광, 신경, 방광경, 양교맥, 음교맥, 배, 골수, 침줄, 귀, 허리, 이발, 머리카락, 음부, 겨드랑이 등

간의 도움을 주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화살표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목형의 심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화형의 심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간장/담낭이 건강한 사람은 자연히 심장/소장이 건강하게끔 되는 이치로서 청색과 장방형은 적색과 역삼각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태와 색채의 도움관계에 대한 원리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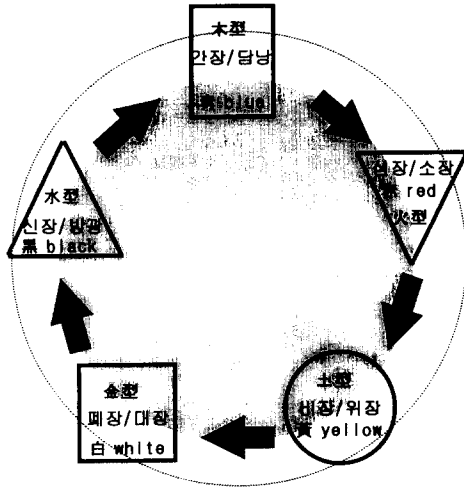


그림7. 상생작용에 의한 감성요인들간의 도움을 주는 체계

그림8은 상극작용에 의한 감성요인들간의 견제를 하는 관계를 대상간의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견제를 한다는 의미는 대상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관계로서 서로의 역량을 대등하게 하기위한 작용으로 설명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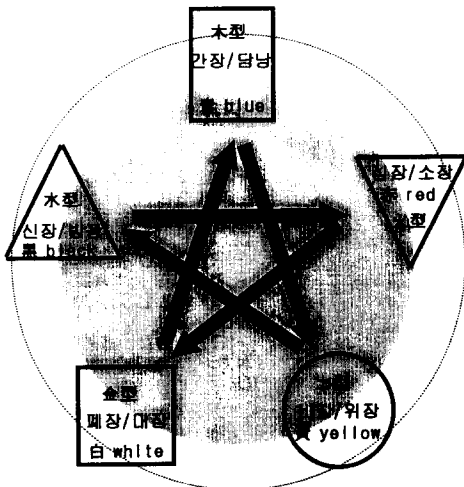


그림8. 상극작용에 의한 감성요인들간의 견제를 하는 체계

예를들어 목형의 본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극작용에 의하여 토형의 심리를 적게 소유하게 되고 비장/위장이 약해짐으로, 서로의 역량을 균형있게 하기 위하여 둥근 원형과 황색계통을 선호하게끔 되는 원리인데, 이러한 선호를 통하여 토형

의 심리를 충족시키게 되고 비장/위장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부족되는 심리나 건강을 특정 사물(형태, 색채)을 통해서 충족 시키게끔 자연의 원리가 되어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편 상화작용은 상생, 상극작용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형태와 색채 측면에서 장방형, 역삼각형, 원, 정방형, 삼각형, 청, 적, 황, 백, 흑 모두를 선호하고, 목, 화, 토, 금, 수의 심리(성격)들을 골고루 지니고, 간담,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을 모두 골고루 건강하게 하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즉 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보게 될 때 인간이 특정 형태나 색채를 좋아하고 특정 성격과 인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상화를 이루기 위한 자연스런 현상인 것이다. 즉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특별히 무엇인가를 선호하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표3, 그림7, 그림8의 설명을 통해 본 연구의 기대 효과와 감성요인들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디자인인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예시해 보고자하는데, 기대되는 활용범위는 많겠지만 그 중 몇가지만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1. 5가지 심리유형(목화토금수)에 따른 5가지 부류의 직업의 분야에 있어서 작업에 대한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와 같은 경우 눈의 피로를 가중시켜 간담을 약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백색 계통의 색채는 눈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켜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제품은 다양한 청색 계통의 색채로 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 줄고 작업의 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2. 5가지 인체조직(목화토금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상 있는 부위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형태와 색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모인 병동에는 황색계열의 인테리어와 황색계열의 환자복, 둥근 형태의 시소물-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제품 디자인 중 개인 소지 물인 경우 5가지 체질의 사람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5가지 유형의 형태와 색채를 옵션으로 하게되면 사람도 건강하게 되고 이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상업 공간의 디자인에 있어서 다각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오락실은 붉은 색 계통으로 하면 사람들이 화의 기운을 많이 받음에 따라 활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음식점은 황색 계통으로 하면 토의 기운을 받음에 따라 소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일 경우는 과음하게 되면 폐와 대장이 상할 수 있으니 실내장식을 사각형과 백색 계통으로 하면 금의 기운을 받아 장부를 보호할 수 있으리라 예상됨)
5.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휴식공간인 경우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청색계통과 황색계통의 색채 그리고 장방형과 원형적 요소를 적용 하였을 경우 간장/담낭과 비장/위장이 편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보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의 5가지 활용 가능성 외에 본 연구자가 본 이론의 활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둘 수 있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게 될 때, 왜 소비자들은 이런 형태와 색채를 선호하는가의 이치를 본 이론을 적용 하였을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형태와 색채를 사물에 구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간의 감성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을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조망함으로써 동양적 시각으로 감성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음양오행사상의 원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내면의 심리와 인체체계 그리고 형태감, 색채감을 분리된 상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감성체계를 전체적으로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인간의 감성이 변화하는 환경 조건을 크게 형태와 색채로 대표하여 보았을 때 형태와 색채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는 인간의 심리와 인체의 변화상태를 그리고, 역으로 인간의 심리와 인체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는 인간의 형태감과 색채감을 음양오행사상의 원리를 통해 인식할 수 있었다. 아울러 프로이드의 동기연구에 있어서 인간 행동을 규정짓는 심리적 영향요인을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인간의 의식표면에서 인지되어지고 있지 않는 인간의 감성을 인체조직의 변화상태나 형태감(형태의 선호), 색채감(색채의 선호)을 통해서 예측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디자인계에 있어서는 생소한 연구분야로서 자리를 하고 있지만 향후 많은 디자이너들의 관심속에서 연구가 구체화되고 실효성이 입증 되어갈 때 그 가치는 새롭게 인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참고문헌

1. 김 춘 식 천공생식원자료, 1996
2. 김 봉 준 쉽게 문 역학, 신비한 동양철학2, 삼한출판, 1995
3. 김 태 영 선도체형기 8.9.10권, 유림출판, 1996
4. 유 영 호 설문조사법, 자유아카데미, 1994
5. 임 승 빈 환경심리 행태론, 보성문화사, 1995
6. 김 용 훈 색채상품개발론, 청고출판사, 1987
7. 민 경 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8. 정 다 운 인생심어진법, 밀알, 1989
9. 박 은 주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1995
10. 에드워드. 디보노 저 수평적 사고방식 민성사 1991.
11. 김 춘 식 오행생식요법, 유림, 1996
12. 파버비렌 김 화중 譯, 색채심리, 東國出版社, 1995
13. W.Kandinsky, Uber das Geistige in Kunt 권 영필 譯, 칸딘스키 예술론,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미술선집, 1995
14. W. Kandinsky, Punkt und Linie zu Fläche 차 봉희 譯, 칸딘스키 예술론II 점, 선, 면 열화당미술선집, 1995
15. Wallace. Goldstein. Nathan. 이 관용 外譯, 심리학개론, 울곡출판, 1990
16. Georges Nataf, Symboles Signes et Marques. 김 정란 譯, 열화당미술선집, 상징, 기호, 표지, 1995
17. Bauhaus (칸딘스키의 바우하우스에서의 수업내용 중 The Fantastical Elements of Form 에서)
18. Donis A. Dondis, A PRIMER OF VISUAL LITERACY, The MIT Press Design Department, 1973
19. 오미겐타로 권 민 譯, 조형심리, 東國出版社, 1995
20. 나가마찌미쥬오 김 연민 譯, 感性工學,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4
21. Calvin S. Hall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백 상창 譯, 프로이드 心理學, 文藝出版社, 1991
22. 한국적 디자인의 응용사례 연구 민 경우 이 순중 안 상수 강 병석 통상산업부 1996. 10

23. 국제 비교분석을 통한 감성디자인 요소의 지역적 특성 추출 및 응용 김 철수 정 도성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연구소 통상산업부 1997.9
24. 문화적 디자인의 방향 이 순중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1994
25. 음양오행사상의 시각디자인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오 근 재 흥익대학교 1997. 10

부 록

no.






■ 본 설문내용은 귀하의 형태감과 색채감을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성별 _____ 연령 _____ 직업 _____

얼굴형 _____ 건강 _____

기호식품 _____ 성격 _____






■ 귀하의 선호 형태와 색채를 순위 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예)     

계통 靑 赤 黃 白 黑
 색채 blue red yellow white black
 () (1) () () (2)






과거의 선호 형태, 색채

과거의 연령 ()

靑 赤 黃 白 黑
 blue red yellow white black
 () () () () ()

현재의 선호 형태, 색채

靑 赤 黃 白 黑
 blue red yellow white black
 () () () () ()